V 결론

그동안 기업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는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외부 비경제(Negative Externality)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이 증대되고 2015년 파리협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정책 도입으로 전환 위험도 가시화되면서,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재무공시 체계로 통합하고 자 지속가능 재무공시의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EU를 필두로 지속가능 공시를 재무적 중요성을 포함하여 제도화하려는 추세이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투자자에게 이미 중요한 투자결정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지속가능성 요소의 재무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중요 투자결정 요소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여 투자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속가능 공시제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적시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장규율 메커니즘이다. 기업들이 노출된 각종 지속가능 위험과 기회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정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하고 비교가능하게 공시해야 투자자금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GRI 표준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공시의 국제기준이 TCFD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통하여 ISSB의 지속가능 재무공시 국제기준으로 발표되고, EU와 미국의 기업공시체계에서 지속가능 재무공시가 제도화되면서 논의된 주요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한 공시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해외의 국제기준과 공시규제 제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들은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하는 데 좋은 타산지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진심을 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에 매진하는

기업으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인류의 안녕과 더 나아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기 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